



그 길을 걸어가다

내분비대사학

CORE VALUES



내분비대사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이나 체내 분비 물질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대사 및 신체 변화를 감지하여 그 원인을 추론하고 확인하는 학문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분비대사학.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을 통해, 내분비대사학의 앞에 펼쳐진 다양한 길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다음의 걸어갈 길을 고민하는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김동선

대한내분비학회 홍보책자를 발간하며

연구 및 진료 현장에서의 의학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분과별 고유성 및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과학의 발전 속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한편으로는, 각 분야 간에 지식 및 정보의 교류와 유기적인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분야별 진료 과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 통합이 되는 현상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보화 및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변화와 혼돈을 예고하고 있기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내분비대사학은 생명체의 균형과 조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최근 지식의 정보화와 제반 산업 및 각 학문들 간 상호 융합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 양식 변화, 환경 오염 증가 등은 내분비대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전과 소임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학회는 연구 및 진료, 그 외 산업 현장 및 지역 사회에서 내분비대사학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의 위치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분비대사학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신진 후학들에게 앞날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분비대사 질환 소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내분비대사 질환과 관련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한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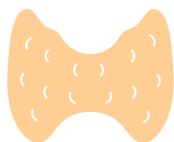


당뇨병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가 정상 이상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질, 단백질 등의 대사 이상과 함께 심혈관 질환, 말초동맥 질환과 같은 대혈관 합병증 및 신경, 눈, 콩팥에 미세혈관 합병증을 동반하는 만성 대사 질환입니다. 당뇨병의 발생 기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인슐린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결핍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 등)에 노출될 때, 그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음(多飮, 물을 많이 마심), 다뇨(多尿, 소변을 많이 봄), 다식(多食, 많이 먹음)과 같은 '삼다(三多)'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크게 높지 않으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뇨병은 임상 영양 요법, 운동 요법, 약물 요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합병증 동반 유무, 생활 패턴, 동반 질환 여부, 기대 수명 등 환자 개개인에 맞는 혈당 조절 목표를 정한 후,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개별화된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당뇨병으로 인한 급·만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갑상선 질환은 내분비 영역의 임상 진료 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갑상선호르몬은 전신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갑상선 기능 이상은 갑상선이라는 내분비 기관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기보다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장기의 기능 및 내과적 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분비내과와 의사가 다른 임상 과에서 다양한 자문을 의뢰받는 분야입니다.

환자가 직접 질환에 따른 증상과 치료 반응을 자각하고 호소하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내분비대사 질환 환자들의 1차 진료 영역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갑상선결절과 갑상선암의 유병률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갑상선종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종양 발생 및 진행에 관한 기전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분비대사 질환 소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내분비대사 질환과 관련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한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질환

뇌하수체는 뇌의 정중앙에 위치한 시상하부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연결된 1cm 가량의 작은 기관입니다. 발생학적으로 기원이 다른 두 부분인 전엽과 후엽으로 구분되며, 전엽에서는 ACTH, TSH, GH, GnRH, Prolactin 등이 분비되고, 후엽에서는 항이뇨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갑상선, 성선, 부신 등 체내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뇌하수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호르몬 분비 상태나 환경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 단계인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혹은 신경 전달 신호를 통해 조절을 받고 있어, 시상하부-뇌하수체-표적 기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질환은 특정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는 종양이 있는 경우, 종양이 주변 뇌 조직이나 시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일으키는 경우, 호르몬 장애를 동반하지 않고 우연히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합니다.

골대사 질환

우리 몸의 근간인 뼈는 몸의 모든 기관을 지지하고 고정시키는 역할 이외에,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내분비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 없이 오래된 뼈 조직을 흡수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매우 활동적인 대사 과정을 통해, 손상된 뼈를 튼튼하고 새로운 뼈로 교체합니다. 이는 뼈의 미세한 손상이나 골절을 치료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뼈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골대사 질환이 유발됩니다.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골대사 질환입니다. 내분비대사내과에서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1차적, 2차적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사용한 골밀도 측정기를 통해 골다공증을 진단합니다. 이외에도 부갑상선호르몬, 비타민 D, 칼슘, 인 등 대사 이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칼슘 및 골대사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부신 질환

부신은 좌우 신장의 윗부분에 위치하며, 우리 몸의 대사 작용에 필수적인 내분비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부신은 부신수질과 부신피질로 나뉘며, 부신수질에서는 카테콜라민(갈색세포소선종, 부신수질기능저하증 등)이, 부신피질에서는 코르티솔(쿠싱증후군, 에디슨병 등), 알도스테론(원발성 알도스테론증, 저알도스테론증 등) 등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이 부족하거나 과잉 생성될 경우에 증상으로 발현되고, 이는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중년 이상 성인의 5-10%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부신우연종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특정 호르몬의 검사가 필요하며, 약물적 치료를 할지, 수술적 접근을 할지 결정하는 명확한 진단적 검사가 우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Total Care에 걸맞은 가장 영역이 넓은 과는 내분비대사학입니다.

내분비대사학 교수는 진료, 연구,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차봉연 교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학생 시절, 상호 관련성을 마치 어떤 역사 이야기처럼 잘 풀어 설명하는 강의 내용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내분비대사학은 어느 한 기관이나 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아니라 전신의 기능을 돌아보게 하는 학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체를 소우주라고 표현하듯이, 내분비대사내과는 토털 케어에 걸맞은 과로서 가장 영역이 넓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의 장점은, 첫째로 비교적 많은 수의 내분비대사 질환 환자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분비대사 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있어서 전문화된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임상 연구든 기초학 연구든, 자신의 연구 능력을 펼쳐서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후진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종 학회 활동이나 여러 종류의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단한 연구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교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젊어서부터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걸어온 교수의 길을 되돌아보며 느끼는 큰 자부심입니다. 또한 각 환자당 주어지는 짧은 진료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고 열정적으로 진료해온 것은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내분비대사학의 분야는 넓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고지혈증 등과 같은 몇몇 질환을 제외하면 드문 질환들입니다. 평생 한 번도 접하지 못하는 내분비 영역의 질환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내분비대사내과 의사가 되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그만큼 보람도 뒤따를 것입니다. 특히 대학병원에 남아 교수로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한 분야의 한 가지 연구에 집중하여 장기간에 걸쳐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는 생각을 넓혀주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연구자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훈도(薰陶)의 길을 걷어가는 삶.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유형준 교수 前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의 길은 도자기 굽기 체험에 빗댈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는 흙을 반죽하여 물레 성형으로 굽갇기를 하고 애벌, 재벌구이를 거칩니다. 이렇게 열정과 정성을 들여 도자기를 굽는 것을 훈도라 합니다. 흙을 다져 질그릇을 굽고 만든다는 뜻으로, 사람의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잘 가르치고 길러서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함을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문이나 덕으로써 사람의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치고 길러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함을 뜻하며, '훈도를 하다', '훈도를 받는다'라고 씁니다. 훈도는 1,3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뎌내며 도자기 하나하나를 구워내는 가마와 도공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과정이며 결실입니다. 자극한 정성에 진정한 열망이 함께 어울려야 마음에 드는 훌륭한 도자기들—더구나 같은 가마에서 구워진 도자기라도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는—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훈도야말로 교수의 길이 지닌 매력입니다.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로서의 역할과 갖추어야 할 덕목은 사변(思辨)과 기다림입니다. 사변은 깊이 생각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영어로 speculation입니다. 내분비대사내과의 학술 연구와 실제 임상 진료의 모든 과정은 깊은 사변을 상당히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연결선은 없지만, 몸 안에서 분비하고 작동하며 조절하는 현상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직선으로 또는 곡선으로 일련의 상황들을 잘 엮어 걸으로 드러난 병적 소견들과 하나씩 연관 지어 살펴내는 내분비대사학은, 여러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여 보고 확인하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상상력과 추론(推論)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기다려주기입니다.

'기다리기'는 피동적 행위이고, '기다려주기'는 능동적 행동입니다. 제자들과 후배들을 서둘러 채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데에서 제자, 후배는 성장하고 영글어간다고 확신합니다.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Physician Scientist로서의 삶

남수연 INTS Bio 대표

연세의대 졸업, 연세의대 내과학 석사, 내분비대사학 박사

스웨덴 Karolinska 대학에서 연수할 때, 제약회사에서 의사가 신약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physician scientist로서의 꿈을 펼쳐보기로 결심하였고, 이후 Roche Korea Medical director, BMS, R&D Center global medical director 등을 거치며,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미국 biotech사와 joint venture를 설립하여 초대 CEO를 지냈고, 2017년 즈음에 INTS(Innovative, Nimble, Translational, Strategic) R&D를 실현해보고 싶은 열망에 힘써 INTS bio (주)인초바이오라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벤처(bio-venture)를 창업하기 전, 벤처 회사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가 임상 의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선배 의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막다른 길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physician scientist'로서 신약 연구 개발에 인생을 걸어보는 것은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는 일이자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환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관리 시스템을 위한, 내분비대사학 전문가

유승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장

이화의대 졸업, 이화의대 내과학 석사, 보건학 박사

저는 줄곧 개인의 질병 중증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를 통해서 예방과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소명으로, 그동안 관심 있게 공부해온 당뇨병 환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해볼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지역본부의 건강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임신성 당뇨병 사업과 모바일 당뇨병 예방 사업을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 대사 질환 영역은 암, 치매,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4대 중증 질환의 원인과 결과가 되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의 뒷받침이 주된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내분비대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분비대사학을 전공하여 국가의 건강 정책을 주도하고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후배분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행복한 일은 무엇인지 먼저 질문하세요 Carpe diem, Seize the day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
연세의료대 졸업, 연세대 석,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박사후 연구원

저는 1999년 연세의료대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뒤, 2006년 UCSF로 연수를 떠나 5년간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2011년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조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카이스트에서 당뇨병 발병 과정에서 베타세포의 변화 및 세로토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중개연구, 융합연구를 박사과정의 학생들과 진행합니다.

임상 의사의 길과 연구자의 길,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하고 미련이 남습니다. 반면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가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진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너무 먼 미래를 위한 선택보다 오늘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도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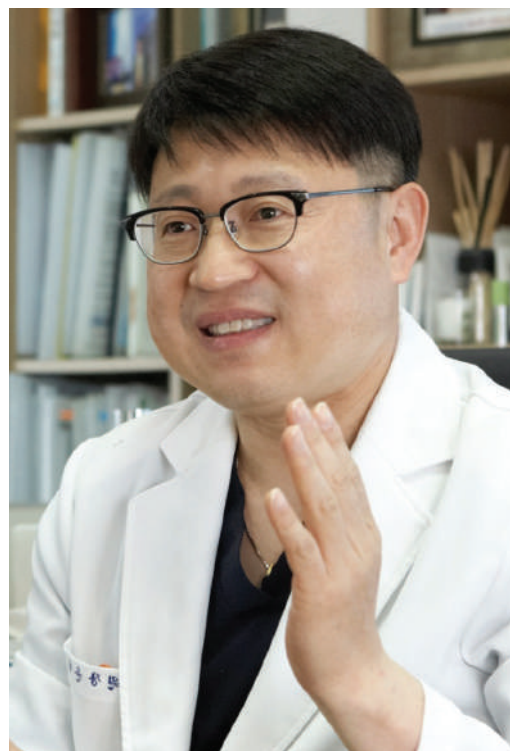
다른 의료 기관과 차별화된 당뇨병 환자 전문 클리닉의 매력과 가능성

윤석기 천안엔도내과의원 원장
순천향의료대 졸업, 순천향의료대 내과학 석사, 내분비학 박사

저는 순천향의료대를 졸업하고 순천향대학천안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내분비대사 질환 전문 클리닉인 천안엔도내과를 운영 중입니다. 외래 진료 외에도 다양한 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관련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까지 수여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전공 선택에 고민이 많은 후배들에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향후 10-20년 사이에 의료 시장에는 비만, 대사 질환에 대한 관심, 예방 중심의 의료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내분비대사내과 의사의 진료 영역은 반드시 확대될 것입니다.

내분비대사내과를 전공하여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후배들이 많이 생겨나서, 저처럼 본인의 진료 클리닉 운영뿐 아니라 학회의 일원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내분비대사학 전임의의 길

많은 선배들에게 내분비대사학 전임의의 길을 선택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보았습니다.



공성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학은 장기에 국한되지 않고 몸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논리로 이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더 밝혀질 것이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 재미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내분비대사내과 전임의의 가장 큰 장점은 응급 환자를 봐야 하는 경우나 시술, 당직을 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본인의 연구나 공부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갑상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이 분야의 임상가이자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다함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저는 전공의를 마치고 군대 대신 physician scientist(전문 연구 요원)라는 프로그램으로 5년간 연구를 하고 와서 전임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분비대사학을 선택한 이유는, 의대 본과 2학년 때 내분비대사학을 배우면서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들이 신기하고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내분비대사 질환에 대해 많이 경험하고 배워서, 차후에는 갑상선, 뇌하수체 분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영기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대사학을 처음 접했을 때, 호르몬과 각종 대사 지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질환을 진단해나가는 과정이 마치 재미있는 퀴즈를 푸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 느낀 학문에 대한 흥미로 결국 전공 선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분비대사학 중에서도 갑상선 분야에 가장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갑상선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자로서의 삶보다는 임상 의사로서의 삶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홍남기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학문으로서 내분비대사학의 매력은 단순한 하나의 기관 혹은 장기에 국한되지 않고, 분자 및 세포 차원의 변화가 여러 축(axis)을 이루는 기관 및 신체 전체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학문 외적으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당뇨, 골다공증 등의 유병률도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약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추후 내분비대사 질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력과 기대로 내분비대사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의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깊이 경청하며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공부할수록, 그에 따라 치료 및 환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 얼마나 보람 있고 기쁘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골무기질대사 분야에 매료되었는데, 추후 골무기질대사의 여러 질환과 연관된 내분비 희귀 질환들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과에는 여러 분과가 있지만, 내분비대사학은 시간을 두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분비대사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마치 '해결사'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이 분야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분비대사학은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여 아이디어와 노력이 있으면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학문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당뇨병의 병인, 경과, 치료제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유진 계명대의대 동산의료원

전공의 생활 중, 가장 즐겁게 수련을 하였던 과가 내분비대사학이었습니다. 또한 내분비대사내과는 다른 분과에 비해 학문에 특화된 과이기도 합니다. 연구를 지속하면서 진료도 보고, 또 연구 결과를 바로 환자에게 적용해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가 요즘 최신 화두인 것 같습니다. 연구와 진료,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모두를 생각하신다면 자신 있게 내분비대사학 전공을 추천합니다.



하정훈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여러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의학 분야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호르몬과 이와 관련된 질환들을 데이터와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과정에 큰 매력을 느껴 내분비대사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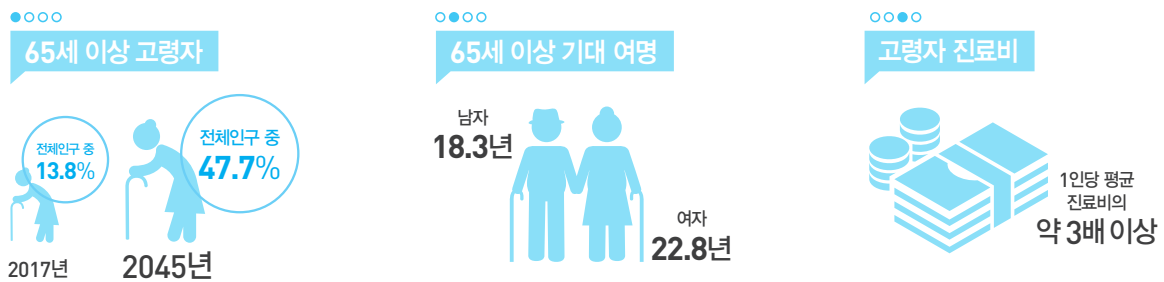
저는 지금 갑상선 질환과 뇌하수체 질환, 골다공증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 분야에 계속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약회사나 공공기관 등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내분비대사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분비대사학을 하시고자 한다면, 타 분과와의 현실적인 비교는 접어두시고, 이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될 만족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내분비대사내과의 현재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2045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65세 고령자의 기대 여명은 남자 18.3년, 여자 22.8년이며, 고령자 진료비가 전체의 36.8%에 달하여 전체 1인당 평균 진료비의 약 3배 정도로 많습니다.



내분비대사 질환 환자의 증가

1) 당뇨병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약 480만명 즉 7명 중에 한 명(약 13.7%)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약 3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10명 중 3명은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당뇨병의 유병률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당뇨병 자체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국가 경제학적 의미 또한 커서 당뇨병은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큰 대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갑상선결절 및 갑상선 암

2014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으로 나타났습니다(여성 1위, 남성 6위). 여성의 경우 64세까지 갑상선암이, 남자의 경우 44세까지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 수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갑상선 결절 및 암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통계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골다공증을 갖고 있고, 5명은 골감소증을 갖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여자 10명 중 3명은 일생동안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하며, 10명 중 1명은 일생 중 대퇴골 골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골다공증 여성 10명 중 8명은 진단을 받지 못하고, 10명 중 9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발굴하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비만

비만의 유병률은 2006년 28.7%에서 2015년 3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을 동반한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분비대사내과의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비만과 같은 질환은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분비대사내과의 영역은 앞으로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사망률이 낮아짐으로써 기대 여명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내분비대사내과 의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 물질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교란) 물질(Endocrine disruptors)에 관련한 연구도 내분비대사내과의 흥미로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 정격화된 진료들은 대체될 수 있다고 하지만, 내분비대사내과에서의 약물 치료는 medicine보다는 art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치료 결과에 도달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QOL(Quality of Life)이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오히려 AI가 담당할 수 없는 individualized management의 측면의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분비대사내과는 임상으로서 다양한 대사 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학문적 성취의 무한한 가능성 또한 얻을 수 있는 과입니다.

ENDOCRINE



MISSION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of
Medicine through Endocrine Research

VISION

To Become A World-Class Endocrine Society



대한내분비학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503호, 우)04146
Copyright(c) by Korean Endocrine Society. All rights Reserved.